



2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전북도 국정감사

주요현안 언급 없고 '새만금 타령' 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관련기사 2면·3면〉 사실상 국감 단골 메뉴인 새만금에서 시작해 새만금에서 끝이 났다.

이날 전북도의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한 것을 축하한다"며 포문을 열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질의는 새만금에 편중됐고, 간간이 전북혁신도시와 소방공무원 증원문제 등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날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축하하고 가칭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로 배치해야 한다"며 "전북 출신 인재들로 배치하고, 기

간간이 전북혁신도시·소방공무원 증원문제만 나와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질의에 송 지사 "법적 사안"

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 구성, 속도감 있는 매립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회장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잼버리대회의 경우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전북 스카우트 구성 학교를 보니까 도내 중·고·특수학교는 없다"며 "개최지인 전북에 중·고교 스카우트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도에 요구한 새만금 SOC 요구액이 반토막 났다"며 "반토막이 난 것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 SOC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

은 "잼버리 대회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기구축 및 신고용수단 운영이 필요하고, 전북 권역별 관광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 이미지의 전략적 홍보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대회 개최 이전 잠깐 희망을 예상했다가 사후 활용방안 부재로 잿빛 절망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며 "잼버리 이후 부지활용 및 새만금 브랜드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분 새만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면서 정작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간지러운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 전북도내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하이트 전주공장 철수설, 익산 내슬론 폐업 등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군산 조선소의 어려움이 있을텐데, 전북에

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상황에서 조선소축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고 말한 것 뿐이었다.

그나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도민들의 관심사인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결국 백지화됐다"며 "국비 70억원이나 확보됐었지만 결국 반납했고, 도지사와 전주 시장간의 의견차이로 그 피해를 도민들이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북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며 "같은 당(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전주 시장이 도민과 시민을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지 백지화는 아니다"며 "경기장 재개발은 협의문제가 아닌 법적인 사안만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또다른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2017 전북의 별 육성사업 성과 우수학교 선정

1위 '야구' 군산 남초교 2위 '수영' 군산 진포중

'오케스트라' 장수 범암초 '태권도' 완주 삼례초 3위

도, 내년 육성사업 공모 신청시 가산점 부여키로

전북도는 예체능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17년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보고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2016년 11월에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시군, 24개교(예능 5개교, 체육분야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성과평가에 참여한 한 학교 관계자는 "2011년 전북의 별 육성사업 지원으로 발굴되었던 '바이에슬론' 꿈나무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며 이는 당초 취지에 걸맞는 큰 성과라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또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가용에 24시간을 몰을 공급해 주는 스프링클러와 같이 도내 예체능 선수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는 현장점검표를 토대로 자료를 수치화한 정량평가 부분과 학교별 보고서 발표 등의 정성평가로 평가한 결과 군산 남초등학교(야구)가 최고점을 받았고 뒤를 이어 군산 진포중학교(수영), 장수 범암초등학교(오케스트라), 완주 삼례초등학교(태권도)가 올해의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는 2018년도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모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2018년도 전북의 별 육성사업 선정을 위해 11월중에 공모를 실시하고 각 학교별로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 철저 규명"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파 발생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문이 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21회 정음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2017년 10월 26일 ~ 10월 30일 (5일간)
개회식 : 10. 28(토)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주차장) 정음시 덕천면 우덕리 869-1

정음축산물 판매 / 농·특산물 판매행사 | 주최 / 주관 | 정음시 | 후원 |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음시지회 | 문의 | 정음시청 축산과 539-6351~3